

MESSAGE

인사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지평과 두루는 시인이 얘기하듯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에서
지평과 두루의 가족이 삶을 나누면서 이웃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가면서 나누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우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을 노래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지평과 두루는 과거사 피해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아동과 청소년,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
뒤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면서 나누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